

글로벌 기업들, AI사관생도들에 창업 노하우 전수

4기 '예비 창업자 Cheer-Up Day' 아마존·카이스트홀딩스 등 참석 창업 성공사례 소개·토크콘서트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 1층 강의실에서 열린 'AI사관학교 예비창업자 Cheer-Up Day' 행사에서 김준하 이사장단장과 신상균 한국 아마존 상무, 조성범 메가존㈜ 대표, 차정훈 ㈜카이스트홀딩스 대표 등이 AI사관학교 학생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마존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에서 인공지능 사관학교 학생들이 AI 기업과 소통하며 창업 전략을 모색하는 'AI사관학교 예비창업자 Cheer-Up Day'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인 AI융합인력양성 사업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AI 사관학교 교육생과 AI 기업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 및 AI 창업 사례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선 인공지능사업융합사업단장의

AI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 아마존, 카이스트홀딩스, 메가존㈜ 등 AI대표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기업 소개 및 AI 창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AI사관학교×기업 브릿지데이'를 비롯한 청중 참여 토크콘서트, AI사관

학교 네트워킹 데이 등이 진행됐다.

특히 AI사관학교×기업 브릿지데이에 참석한 한국 아마존 신상균 상무는 '아마존이 혁신하는 방법'을 주제로 온라인 쇼퍼블,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스트리밍, AI, 로봇 등 다양한 자사의

사업 분야 노하우를 전달했으며, 카이스트의 기술 사업화 전문 투자기관인 ㈜카이스트홀딩스 차정훈 대표는 '조직 행동'을 주제로 기술 고도화,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지원 등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메가존㈜ 조성범 대표는 클라우드 설계 구축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한 AI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인공지능사관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최준형 학생은 "인공지능 분야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AI전문가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AI 창업 성공 노하우 등을 들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사관학교 교육생들이 AI산업 트렌드를 배우고, AI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AI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AI 사관학교 교육생들이 탄탄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혁신적인 AI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산자부 성과평가 'A' 등급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제도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매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투자유치 실적, 경제자유구역 개발 진척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 개정한 신생 기관임에도 체계적인 조직운영 관리와 규제완화 발굴 노력, 다양한 주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정적 운영 토대를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개칭 후 2년간 코로나19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딛고 업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부분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평가 평가위원회는 또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주도적으로 나서 산업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한국은행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등 경자유역 입주기업의 자금 애로 해결에 노력한 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이 광주와 국가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학관 창작실 무료개방 11~20일 입주작가 모집

광주시는 "오는 22일 개관 예정인 '광주문학관' 창작공간에서 작품활동을 수행할 작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응모대상은 사·소설·수필·평론·번역·희곡·동화 등 모든 문학 장르에서 신춘문예, 문학전문지(계간지, 월간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로,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에게는 가점이 있다.

또 신예 작가 중에서도 그 가능성이 인정받은 등단작가 혹은 출판 계획이 있는 예비작가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창작공간은 광주문학관 2, 3층에 2인 1실로 총 4개 곳이며, 사용료는 전액 무료다. 체재비·교통비·식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접수는 11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 (kjih327@korea.kr)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학관운영팀(062-613-2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원 광주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광주문학관은 시민과 작가들이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학 전문공간"이라며 "지역문학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손잡고 주거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나선다

자금·보증 지원 등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도시공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망을 구축해 주거취약계층의 자금 지원 및 보증지원,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복지 및 재무진단 등 비금융지원 연계, 기타 주거생활 지원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토대를 돕겠다"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주거취약계층에게 더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광주시, 교통·식품 등 4개 분야

광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지역 학교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관리가 필요한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스크린 내 과속, 불법 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단속 희망 초등학교 대상 통학로 안전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점검, 개학 대비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교 매점 내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여부, 부정·불량식품·위해 식품 등에 대한 특수사법경찰관 기획수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 전반을 컨설팅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사이버 위협 대비 지능형 보안관제

전국 자치단체 최초 구축

광주시는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능형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안관제 구축으로 업무용 컴퓨터 단말기 보안 위협 탐지 대응(EDR) 시스템, 인공지능(AI) 보안관제 시스템을 연동해 알려지지 않은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EDR은 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

을 실시간 감지해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 기술로, 기존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 파일 위장 악성프로그램 등을 걸러낼 수 있다. 또 AI 학습을 통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고위험 사이버 위협 분석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2009년 개소 후 사이버 위협·침체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후 현재까지 140만 여건의 위협을 탐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